

오피니언

光日春秋

안도현



사랑하는 딸아, 설레느냐? 12월 19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느냐?...

하고 저항하는 이들에게는 철필가 내려졌다. 죽음을 시대였다.

죽음을 삶으로 가까스로 변환시킨 게 1987년 6월이었다. 그 당시 다섯 살 먹은

처음 대통령을 뽑는 딸에게

너를 안고 시위대 뒤를 쫓아가던 일 아니냐?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는 것이었지....

너를 안고 시위대 뒤를 쫓아가던 일 아니냐? 우리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게 해달라는 것이었지....

남었다. 60년이 넘게 싸우고 으르렁대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월을 보냈다. 남북의 체제와 이념과 문화의 이질성은 모두 분단으로부터 나왔다....

가까스로 정신 차리고 손을 잡아보자고 한 게 겨우 10년이다. 천신만고 끝에 되찾은 10년이다. 아직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약을 상처에 발라야 한다....

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다. 너 같은 동생한테 그리 하겠느냐? 딸아, 여전히 북한에 대해 각을 세우고 사대질하는 자들이 있단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청년백수'로 지내고 있는 딸아, 대통령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믿지 마라.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환상에 속지 말라는 말이 다....

거를 해마다 한 번씩 해도 좋겠지. 청년실업이란 말이 속 들어가게 될 터이니까. 너의 일자리는 대통령이 만드는 게 아니라 너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왜곡된 경제 논리를 그대로 추종하지 마라. 부동산 투기로 얻은 재산을 재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한 이 땅에 희망은 없다....

딸아, 이제 너의 한 표가 중요하다. 너의 한 표가 투표율이고, 너의 한 표가 정부고, 너의 한 표가 혁명이고, 너의 한 표가 너의 권력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지방건설업 부도 '도미노' 대책 서둘러라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대동건설이 3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지난달 14일에는 전국 시공능력 275위인 거림건설이 도산됐고 뒤이어 W건설도 자금부다가...

광주·전남의 경우 건설경기 위축과 미분양 사태 등으로 11월 이후 문을 닫은 건설업체가 10곳에 이를 만큼 건설업 경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제 지역 건설업은 '미분양·부도 대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 건설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맞춤형 부양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민의 판단에 맡겨진 BBK 수사결과

검찰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후보가 BBK 전 대표 김경준씨의 주가조작에 공모한 의혹과...

대통합민주신당은 BBK특검법안을 제출하며 검찰을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회창 후보와 권영길 후보, 문국현 후보 등도 수사 결과를 불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적권의 공방은 예견된 것이나 다를 게 없다. 대선이 임박하면서 후보들은 정치공약이나 정책대결은 뒷전인 채 BBK 의혹을 둘러싸고 사생결단식 정쟁을 벌여왔다....

검찰의 수사가 각종 의혹을 속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를 했지만 서울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를 비롯 그동안 이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시작에 불과하다. 대선정국이 '이명박 대 반(反)이명박'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또 다른 의혹을 폭로할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정적권의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검찰이 수사상황을 추가 발표하거나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해 내는 것은 물리적으론 불가능하다. 최종 판단은 결국 유권자 스스로 내릴 수밖에 없게 됐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망년회의 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거절할 용기가 없어 참석하기는 하지만 항상 끝나고 나올 때면 뒷맛이 씁쓸할 때가 많다....

오�히러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셈이다. 노래나 춤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의사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한국식' 강제성을 짚어보자는 것이다....

망년회 이대로 좋으니까

다음은 노래 부르기. 사회자가 지정하거나 먼저 노래를 부른 뒤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이다. 싫다는데 억지로 끌어내 춤을 추게 하는 것도 연례행사다....

바 '건설적'인 얘기는 찾아보기 힘들다. 송년회를 마친 뒤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 조금 흐트랄 수 없는 걸까. 미국인들의 경우 파티를 열면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억지로 무엇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아파트 공동 안테나 적극 활용해야

부모님이 다세대 주택에 살고 계신데 TV 불일이 없는데 문만 버리는 것이 아깝다며 케이블TV 가입을 철회했다. 어느 가정든지 케이블TV에 가입하지 않으면 공중파 TV시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게 볼 수 있다. 매일 유료 케이블 TV 요금을 내지 않고도 TV 시청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공시청 안테나가 있는지조차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기고

김은선



아침 신문이나 저녁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기사 가운데 하나가 "농산물에서 농약이 많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새로운 것 없다 하면서도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일 것이다....

또 농산물이 도시로 들어오는 관문인 농산물도매시장에서도 출하되는 농산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이 한달 동안 전국의 모든 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농산물만 유통시킬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전국에 걸쳐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량 검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농약으로 인한 유해를 가장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자가 농약을 사용할 때 농약병에 쓰여 있는 적용 병해충, 사용량, 사용 횟수, 사용 시기 등을 잘 지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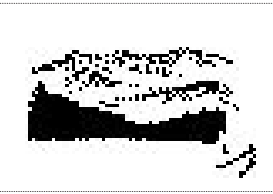
경연규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부적합한 농산물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단속검사를 두고 검사결과가 대부분 소비된 후에야 나오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을 하지만, 사후 단속의 효과는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생산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농약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판매한 뒤에도 반드시 적발되어 행정조치를 당하게 된다는 경각심을 농민들에게 심어주어 농약의 적절한 사용을 계도한다는 데 있다....

無等鼓

사람의 체질을 태양과 태음·소양·소음인의 네 가지로 나누어 처방을 달리 하는 사상의학이 우리 생활에 뿌리 내린지 오래다. 사상의학은 사람의 체질을 따라 성품과 자질이 차이가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태양인은 위급이 없고, 태음인은 예의가 바르며, 소양인은 장흥군이 오는 2011년까지 관산을 옥당리 일대에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른 약을 써야 한다는 사상의학의 토대가 됐다. 사상의학은 의술뿐 아니라 도덕과 수양을 중시한다. 그것만 성질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단점을 수양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법인 셈이다. 장흥군이 오는 2011년까지 관산을 옥당리 일대에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상의학



이제마 선생(1838~1900)은 유학과 한의학의 학을 접목시켜 정교한 이론체계를 만들어냈다. 그의 생애도 독특하다. 왕족의 후손임에도 끝까지 벼슬을 거부하고 한의사이자 유림으로 생을 마감했다. 전봉투예에도 능했으며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토대로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마 선생과 연고는 없으나 사상의학이 뿌리 내리기에 최적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장흥군의 판단이다. 이미 생약학 한방 특구로 지정돼 있으며 몸에 이로운 유향 화합물이 다량 함유된 토사가 많아 고품질 약초가 자생하고 있다. 장흥군은 천혜의 조건도 중요하나 각고의 노력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다. 자연 환경을 활용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웰빙 관광자원을 조성하려는 장흥군의 노력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기대된다. /김재필 사회2부장 ajkim@kwangju.co.kr

4년제 정시모집 끝난 뒤 전문대 전형 시작됐으면

지금 4년 대학의 입시가 한창 진행 중인데 상당수의 전문대가 이미 원서접수를 마감했거나 합격자 발표 이전에 마감하려 하니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수험생들은 발표도 보기 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전문대에도 지원해야 할 판이다. 전문대학들은 정원 채우기에만 급급해 수시모집에서 엄청나게 많이 모집하고 정시모집에서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임시일정을 정해 민족과 원성을 사고 있다. 아직 4년 정

시모집 대학들의 전형이 끝나지도 않았고 합격자 발표도 안 된 상황에서 전문대들이 원서접수를 하는 것은 전형료 수입을 올리고 정원을 확보하려는 차원이 아닌가.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이중삼중으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와 전문대학은 이런 불편하고 부담만 주는 측면을 고려해 전문대 원서마감을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이후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도형·광주시 광산구 승정동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